

세계정당인들과 함께 국민운동으로 상선을 추진합니다.

**임핑 나이너스터 컨트리 클럽**

- 광주·동광명IC 구간 광복 동원드 산동 (명동출발)IC 영수증 프린트 서비스
- 우천시 9월 이후 불법요청정선세 실시
- 예약: www.hpdyunashy.co.kr 0801-320-7700



### 베이징올림픽 D-27

### 금메달 기대주

### ③ 양궁 임동현

## 두독한 배짱... 올림픽 첫 개인전 금 노린다

올림픽뉴스 전문 웹사이트인 '어라운드 더 링스(Around the Rings)'는 올해 초 2008년 베이징올림픽 예상 메달을 점치면서 양궁 종목에선 독특한 전망을 내놓았다.

국제경기력 분석가인 루치아노 바라의 입을 빌려 한국이 종합 9위에 오를 것으로 내다보면서 양궁에선 한국이 한 번도 우승하지 못한 남자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따는 반면, 올림픽 6연패를 이룩한 여자 개인에선 금메달을 놓칠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바라의 예상이 맞을지 틀릴지는 몰라도 한국이 처음으로 남자 개인전 금메달을 가져온다면 그 주인공은 임동현(22·한국체대)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국내의 양궁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한다.

임동현의 올림픽 참가가 이번이 두번째다. 충북체고 3학년이던 2004년 아테네올림픽에 출전했고, 단체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금메달이 확정된 순간

#### 줄지 않은 시력에 렌즈 착용도 않고 오직 感으로 조준

#### 최근 월드컵 우승 여세 몰아 '베이징 정상' 등극 기대

눈물을 쏟으며 한국 응원단에게 큰 절을 올린 18살 소년은 이제 한국 양궁의 대들보로 성장했다.

임동현의 장점은 두독한 배짱이다. 지난해 7월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대역전극을 펼치며 개인전 금메달을 딴 장면에서도 그의 남다른 배짱이 유감없이 발휘됐다. 당시 첫 3발을 쏠 때까지만 해도 발지나마 치렘필로프(러시아)에게 5점이나 뒤졌다. 120점 만점 승부에서 첫 3발 5

점차라면 어지간해선 뒤집기 힘든 점수다. 포기할만도 했지만 임동현은 흔들리지 않았다.

지난달 1일 터키에서 열린 양궁 3차 월드컵 대회에서 개인전 역전 금메달을 일궈낸 임동현은 같은 달 프랑스 보에에서 열린 양궁 4차 월드컵 대회에선 연습 도중 아까던 활이 부러지는 사고를 겪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단체전 1위에 기여하기도 했다. 줄지 않은 시력이 두독한 배짱의 근원이 됐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얘기다. 그의 양쪽 눈 시력은 0.1이다. 가장 좋은 측정치도 0.3을 넘지 않는다. 중학교 이후로 조금씩 눈이 나빠졌다. 사대에 서면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이 섞여 있는 양궁 과녁이 물감을 풀어놓은 것처럼 흐릿하게 보인다. 시력이 나쁜 그는 활을 쏠 때 느낌을 중요시한다. 일단 느낌이 오면 망설이지 않고 쏘는 스타일이어서 올림픽 대표 6명 중에서도 가장 빨리 활을 쏘는 선수로 꼽힌다.

최근 페이스는 더할 나위 없이 좋다. 2005년 아시아선수권대회 개인·단체전 석권을 시작으로 2006년 도하 아시안게임, 2007년 세계선수권에서 개인·단체전을 휩쓸었다.

한국이 베이징올림픽에서 내건 양궁 금메달 싸움이 목표라면 남자 개인전에서도 노골적 한을 풀어야 한다. 그만큼 임동현에게 불리는 시선은 무겁다. /연합뉴스

## 광양제철고 아쉬운 준우승

### 현대에 3-4 승부차기 패

#### 고교클럽 챔피언리그

광양제철고가 프로축구 K-리그 산하 18세 이하 클럽이 참가한 SBS 고교클럽 챔피언리그에서 아쉬게 준우승에 머물렀다.

광양제철고는 11일 광양전용구장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결승 2차전에서 전·후반과 연장전을 득점 없이 비긴 뒤 피를 말리는 승부차기 끝에 현대고에 3-4로 아쉽게 패했다.

광양제철고는 승부차기에서 두 번째 키커가 실축한 데 이어 네 번째 키커 슈타저 상대 골키퍼 이희성에 막힌 반면 현대고는 다섯 번째 키커 가운데 네 명이 성공해 짜릿한 승리를 거뒀다.

한국프로축구연맹과 대한축구협회가 처음으로 주최한 이 대회는 전체 8개 팀이 출전해 중부와 남부 4개 팀씩 나누어 조별리그를 벌인 뒤 각 조 1, 2위가 크로스 토너먼트로 챔피언을 가리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11일 전남 광양시 광양전용구장에서 열린 SBS 고교 클럽 챔피언 리그 광양제철고와 울산 현대고의 결승전에서 광양제철고 황도연(왼쪽)과 울산현대고 박성준이 공중볼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연합뉴스

### 오장은·고명진 박성화호 합류

부상으로 치료 중이던 미드필더 오장은(울산)이 13일 올림픽축구대표팀에 가세한다. 대한축구협회는 11일 "오장은과 고명진(서울)이 13일 올림픽대표팀에 합류한다"고 밝혔다.

박성화 올림픽대표팀 감독은 오장은의 회복이 예상보다 빨라 일단 13일 재소집 때 불러들이기로 했다.

무릎을 다친 공격수 하태균(수원) 대신에 비명당 40명을 포함한 미드필더 고명진도 13일부터 재개될 소집훈련에 나선다.

## 위창수 '기분 좋은 출발'

### 7언더파 공동 선두

### 생애 첫 우승 기대

### PGA 존디어클래식 1R

위창수(36·테일러메이드)가 미국프로골프(PGA)투어에서 세번째 개인 챔피언이 될 수 있을까.

위창수는 11일(한국시간) 일리노이주 실버스의 디어런TPC(파71·7천257야드)에서 열린 PGA투어 존디어클래식 1라운드에서 7언더파 64타를 때려 쉐인 듀크(미국)와 함께 공동 선두에 나섰다.

올해 EDS바이런넬슨챔피언십 공동 7위가 유일한 '볼 10' 경력인 위창수는 생애 최고 성적에 도전할 발판을 마련했다.

다음 주에 열리는 브리티시오픈에 대비해 상위 랭커들이 대부분 현지 적응을 위해 영국으로 건너갔기 때문에 상대하기 벅찬 선수가 거의 없어 타수를 한껏 줄여놓은 위창수의 앞길은 밝다.

더구나 이날 필처보인 경기력은 타이거 우즈(미국)가 부럽지 않은 완벽한 플레이였다.

평균 294.5야드에 이른 드라이브샷은 3

차례 페어웨이를 벗어났을 뿐이었고 아이언샷 정확도는 83.3%나 됐다.

퍼팅도 27개로 묶여 만족스러웠다.

10번홀(파5)에서 기분좋은 버디로 경기를 시작한 위창수는 13번홀(파4) 버디에 이어 17번홀(파5) 이글, 18번홀(파4) 버디, 그리고 1번홀(파4) 버디를 잇따라 터트려 신바람을 냈다.

7번홀(파3)에서 버디를 보며 공동 선두로 올라선 위창수는 무엇보다 보기없는 경기가 돋보였다.

두차례 우승을 차지하며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케니 페리(미국)가 6언더파 66타를 쳐 공동 2위로 따라 붙은 것이 가장 신경쓰이는 대목.

라이더컵에 출전할 목숨에 브리티시오픈도 건너뛰고 B급 대회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페리는 6번홀(파4)에서 보기를 적어내지 않았다면 공동 선두에 합류할 수 있었다.

양용은(36·테일러메이드)과 박진(31·던롭스릭슨)은 1언더파 70타를 쳐 공동 67위에 그쳤고 이상욱(24·코브라골프)은 2언더파 73타로 부진, 컷 오프 위치에 머물렀다.

이날 경기는 악천후 탓에 2시간 가량 지연됐다. /연합뉴스



위창수가 11일 일리노이주 실버스의 디어런TPC에서 열린 PGA투어 존디어클래식 1라운드 17번홀에서 두번째 샷을 한 후 공의 궤적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 지은희·박희정 공동 2위

### LPGA 코닝클래식 1R 선두 크리머와 5타차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단일대회 최다 우승에 도전하는 박세리(31)와 4주 연속 우승을 노리는 한국 자매들 앞에 미국의 자존심 플라 크리머가 높은 벽을 만들었다.

크리머는 11일(한국시간) 오후오주 실베이니아의 하일랜드 메도우스 골프장(파71·6천428야드)에서 열린 제이미파 오웬스 코닝클래식 1라운드에서 '곰의 타수' 59타에 1타 모자라는 11언더파 60타를 치는 불꽃타로 단독 선두에 나서 한국자매들을 위협했다.

보기없이 버디 11개를 쓸어 담은 크리머는 1998년 '박세리가 이 대회에서 세웠던 코스레코드 61타를 갈아치우며 시즌 세번째 우승을 향한 발판을 마련했다.

LPGA 투어에서 50대 타수를 친 선수는 안니카 소렌스탐이 유일하다. 소렌스탐은 2001년 스탠더드 레지스터 핑 대회(파72) 2라운드에서 59타를 쳤다.

크리머가 맹타를 휘둘렀지만 골프에서는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기 마련. 한국 자매들은 단독 선두 자리를 크리머에게 내줬지만 상위권에 포진하며 추격에 나섰다.

올 시즌 위너스 클럽에 가입한 지은희(22·힐라코리아)와 중고참 박희정(28·CJ)이 6언더파 65타를 때려내 선두 크리머에 5타 뒤진 공동 2위에 올랐다.

첫번째 홀인 10번홀(파4)에서 1타를 풀이하며 시작한 지은희는 16



지은희



박희정

번홀(파4)에서 18번홀(파5)까지 3개를 연속 버디를 잡는 등 버디 7개에 보기 1개를 스코어카드에 적어냈다.

단일대회 최다인 6회 우승을 노리는 박세리(31)도 버디 4개에 보기 1개를 결들여 3언더파 68타로 김나리(23)와 함께 공동 9위에 자리했다.

박세리가 이번 대회에서 다시 우승하면 미키 라이트(미국)와 소렌스탐이 갖고 있는 LPGA 기록을 경신하게 된다.

김영(28)이 5언더파 66타로 공동 4위, 최혜정(23·카스코)이 4언더파 67타로 공동 6위에 오르며 한국자매 6명이 톱10에 진입, 남은 라운드에서 크리머와 점전을 예고했다.

초청선수로 출전한 위성미(19·나이키골프)는 1언더파 70타를 쳐 공동 32위로 1라운드를 마쳤다. /연합뉴스



12일(토)

▲2008 LPGA 제이미 파 오웬스 코닝 클래식 2R(03:00·XSPORTS)

▲2008 PGA 존 디어 클래식 2R(04:00·SBS스포츠·SBS골프)

▲제30회 대붕기 전국고교야구대회 준결승(12:50·XSPORTS)

▲2008 월드컵 배구(대한민국·쿠바)(14:00·KBS N SPORTS)

▲2008 삼성파브 프로야구(두산·롯데)(16:30·KBS N SPORTS), <우리·한화>(16:50·XSPORTS), <기아·SK>(17:00·MBC ESPN)

## 박찬호 5승 실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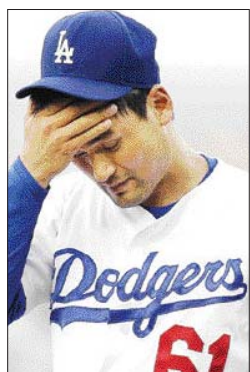


박찬호(35·LA 다저스·사진)가 홈런 군단 플로리다 말린스의 장타력에 막혀

시즌 5승 달성에 실패했다.

박찬호는 11일 캘리포니아주 LA 다저스 타디움에서 계속된 미국프로야구 플로리다와 홈경기에 선발 등판, 4이닝 동안 홈런 1개 포함 안타 9개를 맞고 4점(3자책점)을 줬고 3-4로 뒤진 5회 초부터 귀흥즈에게 바통을 넘겼다.

최고구속은 시속 154km를 찍었지만 플로



리다 타선이 워낙 강한 탓에 짧은 이닝에 88개나 던졌다.

4안타가 2루타 이상 장타였고 박찬호는 매회 주자를 내보내며 힘겨운 게임을 벌였다.

플로리다는 전날까지 홈 홈런 130개를 때려 메이저리그 30개 구단 중 1위를 달리는 팀으로 이날 박찬호를 상대로 매서운 방망이 솜씨를 뽐냈다. 박찬호는 볼이 높아 1회부터 고전했다.